

## (가칭) 마포노동연대의 필요성과 방향

### 1. 마포구의 노동시장 현황

- 마포구민의 인구는 2020년 현재 381,858명이고 세대수는 178,482명임.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06,800명이고 그중 취업자수는 199,500명, 임금노동자는 164,800명이고 비임금노동자수는 34,700명임. 구민 구성으로 보면 마포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3%로 용산구에 이어 2위, 고용률(60.1%) 및 15-64세 고용률(66.9%)은 서울시 각 구중에서 최고를 드러내고 있음.
- 구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이와 약간 꺾을 달리하는데, 마포구의 사업체수는 2019년 기준으로 37,290개, 종사자수는 247,276명을 기록하고 있음. 이중 상용노동자는 172,672명 69.8%, 임시 및 일용노동자수는 34,125명 13.8%,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은 130,312명 12.3%를 차지하고 있음.

#### 1) 마포구의 노동시장은 서비스업 중심임.

- 음식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이 사업체수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사업체수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23.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20.7%)의 비중이 높음. 종사자수로는 도소매업이 34,878명(14.1%)이 2위, 숙박 및 음식점업이 29,425명 11.9% 4위를 차지할 정도임.

#### 2) 정보통신업의 비중이 가장 높음.

- 마포구는 다른 구와 달리 종사자수로 정보통신업 36,841명(14.9%)이 가장 높고 지역내 총생산으로도 28.6%를 차지할 정도(서울시 전체로는 9.1%)임. 이는 상암 DMC를 중심으로 방송,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미디어 관련 서비스산업의 집중도가 높음.
- 아울러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 34,878명(14.1%)이 비중이 높게 나타남. 3위는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33,887명 13.7%, 숙박 및 음식점업이 29,425명 11.9%를 차지하고 있음.

#### 3) 소규모 사업체가 밀집되어 있음.

-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서비스업이 발전되어 있다보니, 마포구의 사업체는 소규모 사업체가 많음. 5인 미만 사업장이 28,561개, 5-9인 사업장이 5,257개, 10-19인 사업장이 1,944개로 20인 미만 사업장이 96.0%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별로는 서교동·상암동을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가 많음.
- 다만, 종사자수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수는 54,135명, 5-9인 사업체의 종사자수는 32,604명, 10-19인 사업체 종사자수는 25,486명으로 2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수는 112,225명으로 45.4%를 차지하고 있음. 300인 이상 사업체수는 275개 86,446명으로 사업체수로는 0.7% 종사자수로는 35.7%를 차지하고 있음.

4) 동별 종사자 분포로 보면 서교, 상암, 도화·용강동이 3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홍대가 있고 음식숙박업과 미술,음악관련 산업이 밀집한 서교동이 57,173명으로 종사자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상암DMC가 있는 상암동이 41,880명으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는 인력공급업 및 시설관리서비스업이 밀집한 용강동 18,813명, 도화동 16,774명으로 3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음.

5) 불안정 취약노동자들은 영세한 규모, 낮은 조직률,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

- 2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수는 112,225명으로 4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영세한 규모로 스스로를 대변할 노조로 조직되어 있지 못함.
- 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마포구내 필수노동자수는 전체 규모는 28,000여 명으로 대부분 10인 미만의 영세규모 사업체에 속하며 청소 6,500명, 경비 3,000명, 콜센터 3,900명, 돌봄 5,500명 등으로 구성되는데 임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아울러 아파트경비의 경우 감시단속업으로 분류되어 대부분의 노동자는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대부분이 24시간 맞교대 근무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 돌봄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휴, 연차휴가, 퇴직금, 4대보험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아울러 마포구에는 상암 DMC에 근무하는 방송작가, 방송스텝, 홍대 연남동에 있는 뮤지션, 타투리스트, 배달라이더 등 최근 급증하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 등 기존의 비정규직 개념을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출현하고 있음. 따라서 전통적 형태의 노동 개념이나 기업별 중심의 노조운동만으로 현재의 불안정 노동자의 삶과 현실을 제대로 접근할 수 없음.

## 2. (가칭)마포노동연대의 필요성

### 1) 기존 노조운동과 마을운동의 한계 극복

#### ○ 기존 노조운동의 한계

- 마포구에는 상암DMC에 밀집한 MBC, YTN, TBS 등 언론노조와 공무원노조 마포지부, 공공운수노조 소속( LG유플러스노조,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등의 정규직노조가 있음.
- 그러나 이들 노조들이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정규-비정규노조간 연대, 비정규노조가 활성화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존재. 상암동DMC를 보면, 정규직 노조는 언론민주화와 정규직 노동자 권익향상에 집중하면서 비정규노동자와의 연대에는 취약함. 지역내 정규직 노조들은 사업장 단위 활동과 기업별 노사관계에 매몰되면서 노조간 연대나 정규-비정규노동자간 연대 역시 매우 취약한 실정임.
- 마포에는 비정규직 중심의 노조도 많이 존재함. 공공운수노조 홍대분회, 방송작가 유니온, 방송스텝노조, 서울경기출판노조, 일반노조 마포구시설관리분회, 타투유니온, 배민지회 등의 민주노총 소속노조, 그리고 독립노조로 뮤지션 유니온, 라이더 유니온 등이 있음. 비정규노조들도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부문에는 일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으나 민간 부문에서는 조직화에 많은 한계를 드러냄. 방송작가나 방송스텝노조 역시 해당 업종에서 노동자 다수의 획득에 이르지 못함.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 원하청 고용관계 등으로 파편화된 노사관계에서 노조의 권능을 행사하는데 한계.
- 특히 영세사업장이 밀집한 돌봄노동자, 아파트경비노동자 등에서는 노조 조직화로는 거의 조직되지 못하고, 오히려 서울요양보호사협회, 마포구아파트경비노동자협회 등 협회 조직화가 시도되고 있음. 이는 영세사업장이 밀집한 특성상 기업별 노조방식의 단체교섭을 주된 방향으로 잡기도 어렵고, 산업적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임.
- 두 번째로 기존 노조운동은 사업장 담벼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사회내에 뿌리박지 못하는 일터와 삶터의 괴리라는 한계를 가짐. 지역내 노조모임으로는 민주노총서부지부 모임이 있으나 마포지역 차원의 모임은 없음. 센터 출범 이후 마포지역 노조대표자모임을 월례화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사태로 주춤. 따라서 지역에서 노조는 자신의 권익에 앞장서지만 지역내 다양한 현안이나 활동에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이기주의로 비치거나 생활세계와 괴리되어 있는 존재로 비침

## ○ 마을운동의 한계

- 마포구에는 공동육아부터 시작해서 공부방, 대안학교, 의료생협, 올림두레생협, 공동주택, 성미산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등 지역운동이 활발하며 다양한 활동과 단체들이 존재.
- 마을운동은 삶터에 기반을 두지만, 일터와 연계되어 있지는 못한 삶터와 일터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한계를 지님.
- 마을운동에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하지만 시민이나 주민으로서 참여하고 이들이 일터의 주인으로 함께 결합되지는 못함.

### 2) 노동과 지역사회가 결합한 노동자생활공동체 실현

- 기존의 노동운동이 갖고 있는 기업별 노조주의, 정규-비정규 연대의 실종, 노동과 삶터의 분리를 극복하고 노동이 살아있는 지역공동체를 구현하는데 마포노동연대는 앞장서나가야 할 것임.
- 지역내 노동자들이 노동자라는 의식으로 뭉치고 연대를 실현하고 일터와 삶터의 조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활동해 나가야 함.
- 이러한 취지하에 지역활동가와 노조운동가, 노동자의 다양한 자조모임 등이 하나의 조직으로 뭉치고, 지역마을단체와 노동자단체가 어우러져 마을과 노동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삶터와 일터에서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임.
- 노동과 지역사회가 결합한 이러한 노동자생활공동체운동은 이미 안산의 ‘좋은 이웃’ 이나 강서양천 민중의 집 ‘사람과 공간 “같은 선구적 경험이 있음.
- 안산의 ‘좋은 이웃’ 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를 표방하는 사단법인으로 제조업, 영세사업장이 밀집한 안산지역에서 시흥안산일반노조의 현장활동가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내 더불어숲, 영화술사, 토닥, 주말농장 등 노동자동아리모임을 토대로 2015년 창립되어 현재 600여 가구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총자산 1억4천230만원, 1가구 출자금 5만원 이상, 매년 최저시급을 월회비로 받으면서 1) 권익증진- 아파트경비, 청소노동자, 청년노동자, 배달노동자, 알바, 택배 노동자 조직화 및 응원하기 2) 생활안정 : 상호부조(건강 및 실업), 소액대출, 산재노동자 지원, 상조, 공동구매 등 공제회 기능 강화 3) 마을모임, 동아리모임, 마을관리소 및 작은 도서관 운영, 공동체 밥상, 노후멘토링 등의 공동체성 확대를 전개하고 있음.

- 강서양천 민중의 집 ‘사람과 공간’은 공공운수노조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활동가들과 함께 2014년 공간을 열고, 노동조합원 1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지역 아동센터 등과 함께 만들고 나누는 김장나눔 행사를 매해 개최하고 노동자건강검진사업, 집수리운동, 노조활동가 기초과정, 시민노동법률학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을 전개하고 강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수탁하였음. 이어 최근에는 민중회관을 새우지는 기획을 통해 지역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시민자산화 사업을 전개하여 건물을 건립하기에 이르렀음.

### 3. (가칭) 마포노동연대 추진경과

- 2022년 1~3월 센터내 제안 및 논의
  - : 2년간 센터사업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을 만나왔지만 센터가 조직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
  - : 마포에서 다양한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있지만 노동이 중심이 된 단체는 없고, 새롭게 필요하다.
  - : 비정규직 조직화, 마을과 노동이 어우러지는 단체를 결성하자!
- 4월 한달간 논의
  - : 매주 월요일 회의를 통해 (가)마포노동연대 추진위원 참가를 점검하고, 내용 준비
- 현재까지 동의한 추진위원 : 노동계 및 마을활동가 약 30여명
- 기획단: 추진위원중 센터직원 4명 포함 10여명으로 기획단 구성.
- 4/28 1차회의에서부터 지금까지 7차에 걸친 회의 및 토론

구분		내용
1차	4/28	기획단 제안
2차	5/9	마포 지역운동 정리 및 평가
3차	5/26	노동조합 지역연대활동 사례 검토, 민중의집 평가
4차	6/10	문화예술운동, 마포공동체경제 모아 사례 검토
5차	6/23	노동공제회 검토
6차	7/7	(가)마포노동연대 필요성과 의미 토론
7차	7/19	(가)마포노동연대 추진 계획 토론
8차	8/2	1차 마포노동포럼 준비

## 4. 마포노동연대의 사업방향

### 1) 불안정 노동자 연대와 조직화

- 센터 출범이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다양한 불안정 노동자를 조직하거나 연대지원사업을 전개함. 이를 토대로 불안정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연대를 지원할 수 있음.

#### ○ 아파트경비노동자

- 매년 3회 이상 동별모임, 구별모임, 총무모임 등 활성화
- 조례제정(624명 참가), 22.6월 협회 추진위 발족식 120명 참가, 100여명 가입, 10월 정식 출범식 400명으로 확대 목표

#### ○ 미디어 비정규직

- 방송작가 문화프로그램, 방송스텝지부 교육 지원
- 랜선 토론회, 미디어비정규직 친구들 참가, 캠페인 전개

#### ○ 라이더

- 소득세 신고 및 건강 프로그램
- 희망라이더 10여명, 1년째 마포희망나눔과 독거노인 봉사활동 전개

#### ○ 마포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마린’ 조직

- 마포노동연대의 출범은 이들 불안정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조직되거나 어려운 노동조건과 복지실태를 개선하는데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임. 마포노동연대는 지역노동자들의 연대조직으로서 이를 조직화하고 조직력을 강화하는 데 노조나 노동자자조모임의 조직가, 활동가 훈련, 연대의 주요한 매개고리가 될 것임.

### 2) 생활공제 및 상호부조 등 노동자복지 사업

- 취약노동자는 노동조건외 격차뿐만 아니라 기업복지 차원에서도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음. 이들의 생활상 위험을 극복하는데 마포노동연대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역내 자영업자와 연대도 강화할 수 있음.
- 노동자생활공동체에서 공제 및 상호부조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생활과 경제의 문제에 도움을 줌으로써 공동체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으며, 둘째 노동자 스스로가 참여와 연대의 원리를 체득함으로써 주체적 정치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는 상호성과 재분배의 원리로 작용하는 공동체로 이어져 자본주의의 대척점을 이룰 수 있음.

### ○ 공동체 가게

- 다양한 업체와 연계하여 음식점, 차수리업체, 커피점 등 업체와 협약하여 공동체 가게를 사용하면 할인하거나 혜택을 주게 할 수 있음. 안산의 좋은 이웃은 51개 업체와 협약을 하여 기관안내 및 인증샷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음. 마포에서는 마포공동체경제 모아에서 공동체 가게 개 업체를 협약을 맺어 공동체경제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마포노동연대는 마포공동체경제 모아와 연계하여 이들 공동체 가게활동 및 이후 얘기되는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도 함께 할 수 있음.

### ○ 소액 대출 및 상호부조

- 취약 노동자에게는 은행 등 금융권의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대출이 어려움. 이들에게는 100만원, 200만원의 소액대출이라도 큰 도움이 됨. 아울러 실업, 건강 등을 위한 공제사업도 가능함.
- 마포노동연대의 회비 중 일정부분을 상호부조 및 대출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해서 예를 들어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실업이나 입원시 응원금으로 일정액을 지원하도록 상호부조사업을 꾸릴 수 있을 것임.

### ○ 지역 공동구매활동

- 제철 농수산물을 지역농민과 연계하거나 유통과정을 생략하거나 포장비용을 낮추어 값싸고 질좋은 공동구매 활동이 가능할 것임. 이는 노동연대의 노동자 조직화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임.

### ○ 법률상담, 의료지원(치과, 의원등)

- 취약노동자에게는 노동법이나 일반 법에 대해서도 접근성이 취약함. 아울러 병의원도 마찬가지임. 지역내 마을과 노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 의사 등을 회원으로 받아들여 이들이 법률 상담, 의료서비스 제공시 일정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 3) 노동과 지역의 연계, 공동체 활성화

#### ○ 지역기반 노동자소모임 활성화

- 문화, 인문, 힐링(등산, 책읽기, 동영상, 건강모임 등등 다양한 노동자 소모임이 지역에 기반하여 만들어져 활동할 수 있음. 안산같은 경우는 노동자소모임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동영상모임, 트레킹모임,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음. 마포지역에서도 현재 책읽기모임, 청소년노동인권모임 등이 만들어져 있으며 점차 활성화될 수 있음.

#### ○ 지역봉사활동

- 라이더유니온 마포서대문은평지부 차원에서 10여명의 라이더들이 마포희망나눔과 연계하여 월1회 독거노인 돌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강서양천 민중의 집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김장담그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마포노동연대는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보다 마포희망나눔이 전개하고 있는 김장담그기운동을 회원들을 동원하여 더욱 대대적으로 많은 취약계층지원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임.
- 집수리와 연계된 전문적 지식을 갖는 노동자들이 참여한다면 사랑의 집수리운동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 안산 좋은 이웃같은 경우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스무살은 처음이라는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청년노동자모임 마니또를 조직하였음. 아울러 50대 이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모임도 구성하였음.
- 지역의 노동대표자들이 한데 모여 월례 마포노동자 밥상모임을 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역과 연계하는 사업도 전개할 수 있음.
- 회원들이 지역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서로 함께 하는 음악회나 가족과 함께 하는 모임 등 다양한 모임도 하여 노동과 지역이 아우러지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



## 5. 추진계획

### 1) 준비위 출범 및 마포노동자한마당

- 이번 첫 포럼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노동자의 생활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전개함.

#### ① “마포에서 불안정 노동자로 살아가기” 2차 마포노동포럼

- 아파트경비노동자, 요양보호사, 배달라이더, 콜센터 상담사, 문화예술노동자, 청소노동자, 방송작가, 방송스텝 등 다양한 불안정 노동자들의 삶을 진솔하게 얘기하고, 지역에서 노동자공동체의 전망을 밝힘.
- 취지 : 마포 불안정노동자의 삶과 연대의 필요성
- 일시 : 9월 15(목) 15:30분

#### ② 조직체계 정비

- 정책 및 홍보, 조직화 두 축으로 진행
- 회원 확대 및 상과 사업 공감대 확산

#### ③ 마포노동컨퍼런스 “지역과 노동의 만남, 어디까지 왔나?”

- 일시 : 10월 19(수)일 : 오후 2시-6시
- 1세션 : 지역 노동자공동체운동, 어디까지 왔나?  
발제 1. 안산 좋은 이웃 : 박재천 안산 비정규센터장  
발제 2. 강서양천 민중의 집 “사람과 공간” : 나상운 강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토론주제>
  - \* 지역과 노동의 만남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낳았는가?
  - \* 불안정 노동자가 지역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 \* 지정토론자 : 마포/영등포/인천 민중의 집 등
- 2세션 :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지역복지, 지역공제회와 공동복지기금  
발제 1. 경기북부 노동자공제회 추진과정  
발제 2. 안산 공단 중소기업사업장 공동복지기금 추진과정

발제 3. 마포경제공동체 모아 사례

<토론주제>

- \* 지역공제회의 가능성과 한계
- \* 지역은행과 공제회, 공동복지기금의 차이와 활용가능성 등
- \* 토론자 : 풀빵/ 노동공제전문가 등

④ 마포노동연대 준비위 출범 및 노동한마당

- 일시: 10월 20(목)일 4시-7시
- 1부 : 마포노동연대 준비위 출범식
  - \* 회원 모집 확대 : 100명으로 (노동조합/ 마을내 활동가/ 기존 네트워크 등등)
  - \* 모아와 연계, 1인 반상근 활동가
- 2부 : 마포노동한마당 - 실내행사, 또는 야외한마당
  - 예) 야외한마당시 타투유니온의 1회성 타투하기, 뮤지션 유니온의 공연, 수제맥주 마시기 등 다양한 활동 연계

2) 본조직 출범 및 사업 본격화

- 출범식(23년 상반기 목표)
- 회원 150-200명으로 확대
- 1인당 월회비 1만원/ 5-10만원 출자금
- 상근 활동가 배치/ 사업추진

3) 연간 일정

	추진위(4월말-7월)	준비단계(7~10월)	준비위(10월~23년 상반기)
주요 목표	비전 및 방향 수립	사업 공유 및 조직화	대중적 출범
사업 내용	기존 활동 및 비전 수립, 준비위 출범	추진위원 확대 준비위 발족 준비	마포노동컨퍼런스 마포노동자한마당 회원 확대
회원 및 회비	30명 기획단회의(겨주 1회) 네트워크비	50명~100명 확대	회원 200명 이상 월 200만원 회비 출자금 1,000만원

## 6. 노동자생활공동체운동의 장기적 방향

### 1) 노동존중 마포만들기 운동

- 마포구를 노동친화도시, 노동존중도시를 만들기 위한 운동임.
- 이를 위해서는 마포구내에 다양한 취약노동자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노동조합이나 협회 등 노동자 자조모임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자주적 권익향상 활동을 전개해나가야 함.
- 노동자의 자주적 대대적 조직화와 함께 구 차원에서도 마포구 노동기본조례 제정, 마포구 노동기본계획 수립, 노동전담부서 신설, 노동자 지원사업 실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확대 강화가 필요함.
- 마포구는 감정노동자, 필수노동자, 아파트경비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을 위한 개별 보호조례는 존재하지만 노동자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못함.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노동기본조례를 통해 노동기본계획이 2기에 걸쳐 수립되었으며 노동조사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등의 사항을 규정함. 성남시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로 더욱 포괄적으로 종속적 노동자만이 아니라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조례를 제정함.
- 서울시 자치구로는 서대문구가 유일하게 노동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 노동자권익위원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교육지원 등을 규정함.

### 2)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협약운동의 전개

- 현재의 대다수 기업별 단체교섭은 영세사업장이나 플랫폼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형태 등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방법임.
- 아파트경비노동자 같은 경우에서도 노조가 만들어지더라도 주요 활동은 기업단위 단체협약보다는 지자체-아파트경비노동자-용역업체 및 입주인대표자회의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교섭과 협약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음. 돌봄노동자들은 돌봄의 사회화와 연계하여 요양보험에서의 노동자임금 결정 등 산업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함. 배달라이더나 택배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플랫

품 대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과 함께 사회적 교섭이 진행되었음.

- 방송작가 같은 경우에는 원고료의 표준화, 위장 프리랜서 정식 채용 등과 더불어 진성 프리랜서에게는 이에 맞는 표준계약서제도가 필요함. 뮤지션, 타투이스트같은 경우에는 더욱 자영업자 성격이 강하며 이에 맞는 제도개선이나 직업훈련 등 다양한 형태의 권익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 3) 노동자기금운동과 공제운동의 결합

- 최근 공공운수노조나 사무금융노조, 금융노조와 같은 산별노조는 각각 노조가 주도하여 사용자들과 함께 수십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기금을 조성하여 공공상생연대기금, 우분투재단, 금융산업공익재단 등의 기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들 노조는 이 기금을 통해 각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및 지원사업,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공제회 추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특히 공공상생기금은 1) 사회적 격차 완화 : 조건의 평등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2)사회적 연대 : 비정규직과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노동공동체의 촉매 3)정의로운 사회 실현 : 내부자 중심 활동을 넘어 모든 을과 약자의 권익 대변 4)사회공공성 강화 : 공공기관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담론 확대 등을 전개하고 있음.
- 한편으로 취약노동자들의 공제활동으로 봉제공제회, 미디어공제회 등의 직종별 노동자공제회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경기북부노동공제회를 비롯하여 원주, 인천 등에서도 지역노동공제회가 추진되고 있음. 안산에서는 영세사업장 노사 수석 곳이 함께 모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어 공동복지기금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은 기업단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뛰어넘어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할 시 이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을 법제화했음. 그러나 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자주복지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음.
- 서울시는 아파트경비노동자 대책으로 공제회를 설립할 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2020년에 밝혔지만, 구체적 지원근거를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노동관련 부서와 예산의 감축이 이루어진 상태임.
- 따라서 취약노동자의 자주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여 노동자의 자주적 공제회나 기금운동에도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함(현재 다양한 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

- 마포노동연대가 기금이나 공제회를 만들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노동자의 자주적 복지운동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임. 아울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고 여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마포에서 일자리-복지-돌봄이 선순환하는 대안적 사회모델, 노동-마을공동체-사회적 경제가 만나는 혁신적인 지역사회운동을 이룰 수 있을 것임.

